

國立 研究기관 統合 추진

全國 81個 頭腦홀어저

技能중복 · 能率的 開發어려워

박정희대통령은 1월 14일 과학기술처 연두순시에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이제 잡혀졌으며,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을 정비강화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시험 연구기관의 수는 모두 81개, 1962명의 연구원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정부각부처의 시험·검사기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중 연구기관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곳을 자질을 높여 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최형섭과학기술처장관은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문제점이 ①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없고 ② 영세규모기관이 지나치게 분산해 있고 ③ 연구기능과 연구시설이 중복되어 있고 ④ 행정적 및 행정관리가 지나치게 많고 ⑤ 연구성과가 미약하며 대학과의 협동체제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대책으로서 ①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순수연구기관은 단계적으로 특수법인체로 바꾸거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하고 ② 비슷한 목적의 연구기관은 정비통합하고 ③ 규격이나 품질검사등으로 나눠 연구기관마다 기능을 전문화하며 연구직과 교직의 겸직 계약연구시설활동등을 통한 대학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할 계획이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韓國 科學技術開發 諮問次

美, 레벨博士등

네 科學者 來韓

科學開發은 大學教育改善이 前提

「유세이드」協助언어 情報技能훈련 힐쓸터

지난 1월 9일 崔亨燮 과학기술처 장관의 초청으로 내한 한바 있는 美國의 저명한 과학자 「R·레벨」博士(「하버드」大 人口문제 연구소장)를 단장으로 한 4명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가단은 제 3차 과학기술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토의등의 관목할 만한 자문을 마치고 동 21일 떠났다.

이들 一行은 崔長官과의 4차에 걸친 토의, 科技處당국과의 5개년 계획에 대한 5차의 토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3차에 걸친 토의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원 서울大 文理大 등 11개 기관을 방문하고 20일 하오 과학기술처 회의실에서 記者 회견을 갖고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과 助言을 피력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유세이드에 신설된 과학기술부를 통하여 과학기술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美國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교류 기술훈련등에 힘 쓰겠다.
2. 과학기술처는 정책수립 및 자문기관으로만 그치지 말고 풍부한 예산으로 산업계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을 알아내서 적극 지원하는등의 방법으로 산업계에 활력을 넣어 줘야 한다.
3. 예산당국에선 각종 연구기관의 예산총액만을 정하고 配定하는 것은 科技處에서 해야만 實效가 된다.
4. 大學과 대학원은 시설이 약하고 教授陣도 不足하니 개선하지 않으면 科學기술진흥을 기대할 수 없다.
5. 종학생 5백여명정도 졸업생 1백70명의 과학원이 한국의 과학기술계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러나 좋은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모델」은 된다.
6. 原子力廳이 없어지고 原子力을 맡는 기구가 새로 생긴다는데 그 기구에선 原子「에너지」문제뿐 아니라 농촌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연료화등 「에너지」문제등도 다루기를 바란다.

국 공립 시험 연구기관의 현황

